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 발굴 채널 다양화를 위해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설명회의 개최

- 범부처 민·관 합동으로 유망한 성장기업 발굴하기 위한 채널 본격 가동
-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등 부처 및 민간 금융권(VC/PE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 국민성장펀드 투자 후보군을 확대
- 각 부처 및 민간 금융권에서 다년간 육성해 온 유망기업 가운데서 집중 발굴
- 국가R&D 단위과제 규모, 각 부처 정책펀드 투자규모 등 고려하여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투자건 중심으로 논의

1. 「성장기업발굴협의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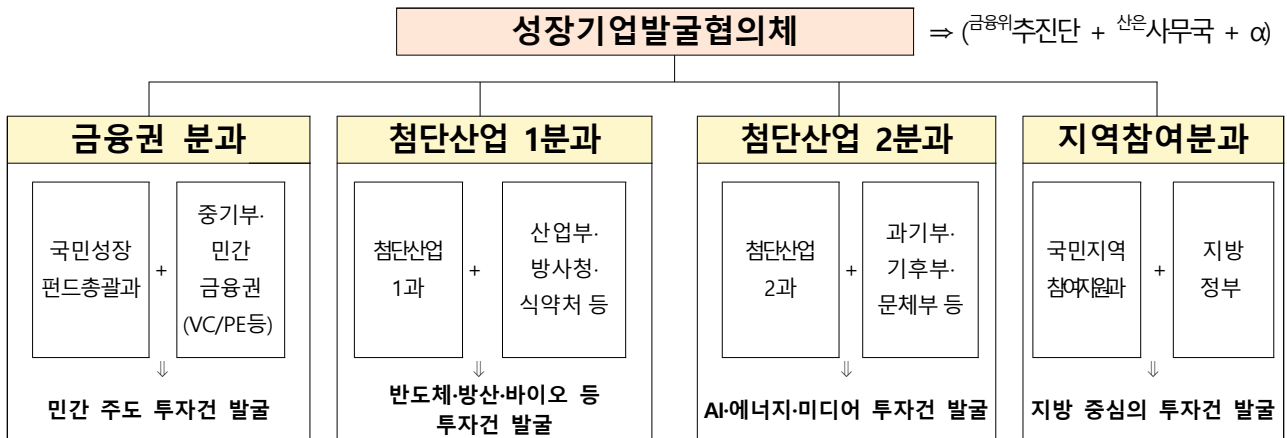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5월 11일(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공식운영을 위한 설명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가 관계부처 및 민간금융권의 추천을 받아 첨단전략 산업의 유망기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핵심기구임을 알리고, 해당 협의체 운영방안을 관계부처에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5.11.(월) 14:00~15:00(6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및 추진단 내 4개 과 과장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의 펀드 관련 과장·담당 12명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총괄사무국장, 대출운용국장
- 회의 주요내용 :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운영방안 안내 및 질의응답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4.14.)’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범부처와 민간 금융기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체는 특정 분야·기업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 완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핵심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각 부처의 핵심 역점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다년간 투자·육성한 기업 등 가운데서 집중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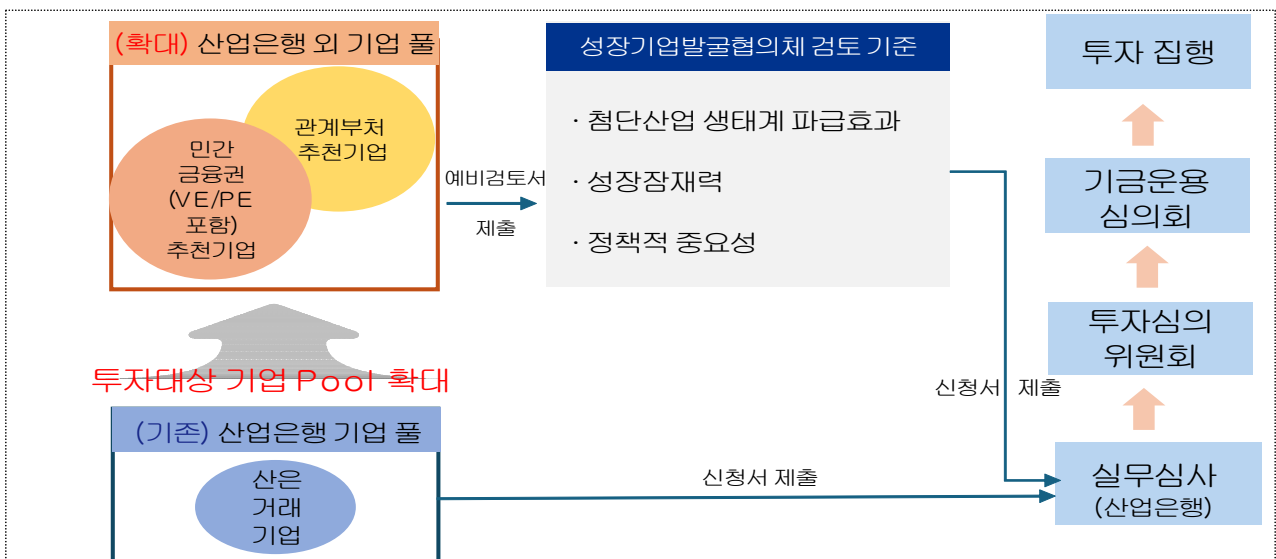
【 성장기업발굴협의체 구성 】



2. 회의 주요 내용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관계부처, 금융권 등 각 기관별 핵심 정책 추진 시 필요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추천하면, 산업 분야별로 유관부처, 제안처, 산업은행 등이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운영개요 】



금융위는 산업 분야별로 우선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은행에 제안할 유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망기업을 선별할 때에는 생태계 파급효과와 성장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예를 들어, 산업부 추천기업은 M.AX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또는 후보기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투자 건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추천기업은 AI 반도체, AI 서비스 등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 관련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모태펀드를 통해 초·중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유니콘 진입을 뒷받침해 왔다면, 이제는 그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후속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모태펀드 투자 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이 「성장기업발굴협의체」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 담당과장은 “그간 부처차원에서 유망 기술기업에 R&D 투자를 해도 대규모 양산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협의체를 통해 국가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AI반도체, AI 서비스 등 AI 풀스택 전 영역에 걸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망한 AI기업을 발굴하여 「성장기업발굴협의체」에 추천하고 해당 기업이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받아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개별산업 현장에서 유망기업을 잘 아는 관계 부처와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시장성을 잘 아는 금융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보유한 산업 네트워크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역량을 결합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운용하는 정책펀드, 국가 R&D 단위과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투자권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02-2224-2011)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	책임자	과 장	최윤석 (02-2224-2030)
		담당자	사무관	강성혜 (02-2224-2032)
	금융위원회 첨단산업2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홍 (02-2224-2050)
		담당자	사무관	이호일 (02-2224-2056)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책임자	국 장	김정구 (02-787-5001)
		담당자	팀 장	이 정 (02-787-5002)